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Zika virus disease)

○ 개 요

1947년 우간다 붉은털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인체감염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

○ 질병특성

- 원인 병원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

- 감염 경로

(주된 전파) 숲모기에 의한 전파로 감염되며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음

* 이집트 숲모기(Aedes aegypti)가 주된 매개체 이나 국내 서식하는 흰줄 숲모기(Aedes albopictus)도 전파 가능

(수혈 전파) 관련 문헌 보고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수혈에 의한 전파 가능성 제기

(성접촉에 의한 전파)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사례 보고 있으며, 감염회복 후 2주까지 정액에서 바이러스 확인

- 임상적 특징

(증상) 특징적인 증상은 반점구진성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이고,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이 동반될 수 있음

(기간 등) 증상은 3~7일 정도 경미하게 진행되며 약 80%는 불현성 감염

(합병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가로 인해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와 길랑바레증후군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나 원인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임

○ 발생국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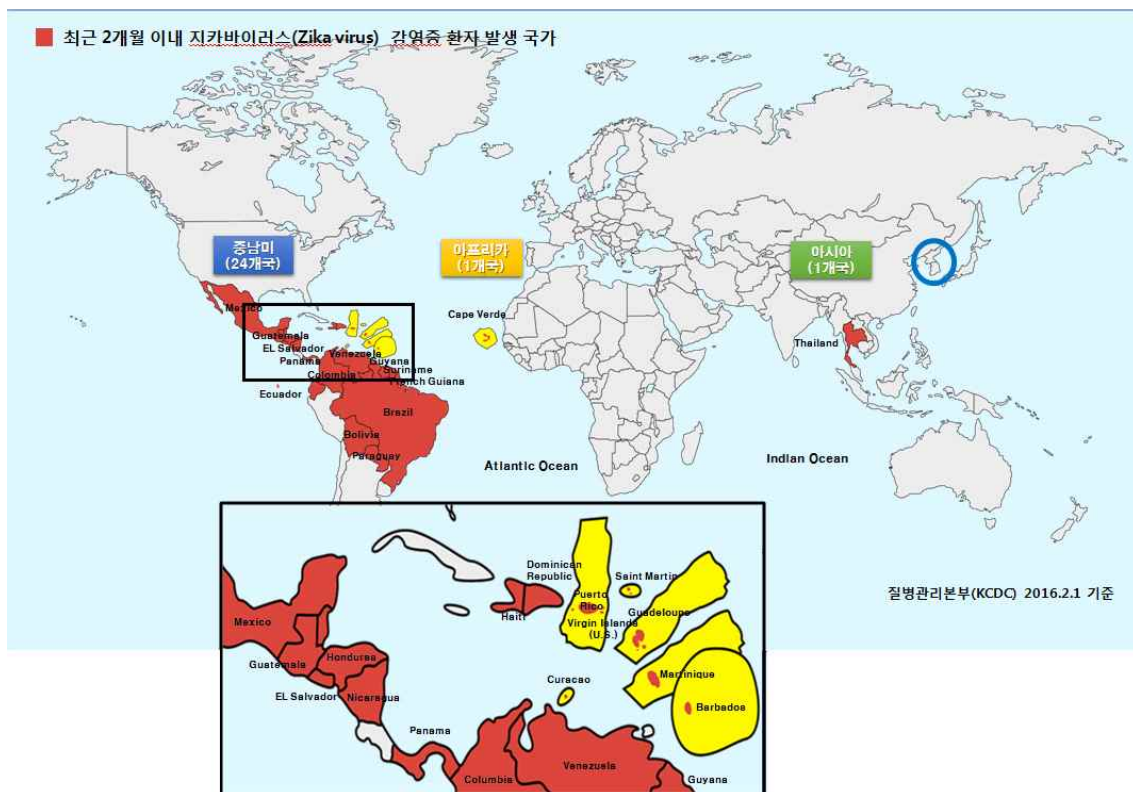
- 2015년 이전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서 발생

- 2015년 이후 '15.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중남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현황('16. 2. 1일 기준)

지역	최근 2개월 이내
중남미	가이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니카라과, 네덜란드령 퀴라소 (24개국)
아시아	태국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 1.29일기준 태평양섬 사모아 최근 2개월이내 발생국가에서 제외(자료원 : ECDC)



○ 진단과 치료

(진단) 혈청 RT-PCR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하여 확진하며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진 가능

(치료)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 증상이 있을 경우 진통제, 해열제 치료 가능. Dengue열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 치료 금지

* Dengue열의 경우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 치료시 출혈 부작용 동반 가능

○ FAQ

– Q :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 A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된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숲모기>

– Q : 국내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나요?

– A : 아직까지 국내 감염사례 및 해외 유입사례가 보고가 없으며 유행국가에 여행할 경우만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 유행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A :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보고가 있는 국가는 중남미 21개, 아프리카 1개, 아시아 1개, 태평양 섬지역 1개 국가이며, 해당 국가에서는 특별히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위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신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사이트’

(http://travelinfo.cdc.go.kr/travelinfo/jsp_travelinfo/home/main/main.jsp)에서 확인 가능

– Q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 A : 보통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이 지나서 증상이 시작 되고 최대 잠복기는 2주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3~7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홍반성 구진성 발진>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 Q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A :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없으나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법은 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긴소매, 긴바지 착용을 하고 수면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 임신부인데 나와 태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 A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여행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 국가에서 모기 회피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 임신중에 발생국가를 다녀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여행에서 돌아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관절염, 충혈 등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면서 해외 여행력을 꼭 이야기 해주세요.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 모기기피제가 임신부에게도 안전한가요?

- A : 각국에서 허가된 모기기피제의 경우 임신부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제품별로 사용법의 차이와 주의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Q :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A :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 모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치료 완료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헌혈하지 않습니다.